

데스크 시각



송기동
예향부장·편집국 부국장

“무릇(夫)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7177호에 의하여 백여 년 동안 약령 받아 구천에서 맘똥을 원혼들에게 설원(雪冤)의 시대를 맞아서 먼저 참혹하게 살상당하신 영령에게 삼가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현존하는 배상옥 장군 무안 집강소

최근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에 자리한 청전재(�淸田齋)를 찾았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서남부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던 대접주 배상옥(규인) 장군이 집강소를 열었다고 알려진 공간이다. 안쪽 벽면에는 ‘답통문’(答通文)이 걸려 있다. 무안 향교와 달성 배씨 무안 도문중(都文中)이 지난 2007년 9월에 배상옥 장군 위패를 사당(청천사)에 추배(追配)하면서 올린 글이다. 회화를 ‘돌아올 회’(回) 대신 ‘닐을 회’(物)를 사용했다. 또 ‘원통한 사정을 풀어 없앤다’는 의미의 ‘설원’과 이어지는 문장에서 항왜(抗倭)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다. “한마디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항왜(抗倭) 3·1 독립만세운동으로 이어져 오늘에 정의롭고 자유로운 민주 국가의 영광을 안겨준 역사적 의의가 높은 애국 보국안민의 단성(丹誠)이었음을 절감하면서...”

은편칼럼



송민식
수필가전 여천고 교장

우리의 전통 시대에는 관례(冠禮)라는 게 있었다. 요즘 성년의 날 치르는 성년 의식이다. 총각머리 대신 상투를 틀고 관을 씌우며 어릴 때부터 불러 온 이름을 대신할 자(字)를 지어주는 것이 관례의 중요한 절차다. 관을 씌으로써 누가 봐도 더 이상 아이가 아님을 알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이름을 아무나 함부로 부르지 않음으로써 이제 어른으로서 대접해 주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날을 시작으로 일상의 외관과 호칭이 달라지는 것은 그 자체로 본인에게 큰 변화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전통 시대의 관례를 부활시키자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정해진 의식을 치른다고 어느 날 갑자기 명실상부한 어른이 될 리도 만무하다. 어른이 되는 것을 두렵고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그저 어찌다 보니 나이를 먹고 이런저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른이 되었을 뿐, 진정한 어른으로서 갖추고 배워야 할 것들은 농천 채 살아가고 있지 않거나 한다.

기고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하다. 옛 GPT로 시작된 초거대 AI 열풍은 전반적인 산업의 판도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앞으로는 초거대 AI의 두뇌가 바로 ‘AI 반도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AI 반도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주도권을 선점하는 것이 관건이다.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비즈니스 영역을 AI 반도체로 확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국산 AI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클라우드에 국산 AI 반도체를 적용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경쟁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경기도 판교에서 개최된 ‘K-클라우드 프로젝트’ 1단계 착수 보고회에 참석한 바 있다. 국산 AI 반도체와 국산 클라우드를 엮어 세계 디지털 시장 본격 진출을 다짐하는 첫 번째 자리였다. 광주 첨단 3지구 인공지능 산업 융합 집적단지(AI 집적단지) 조성 사업과 인공지능사업단(AICA)에 대해

독립운동의 시발점, 동학농민혁명

배상옥 장군의 뜨거웠던 삶의 발자취를 현 시점에서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폭포시 대양동(당시 무안현 삼향면 대월리) 생가 터는 무성한 풀과 나무로 뒤덮여 있다. 아무런 표지석이나 안내판도 세워져 있지 않았다. 골목길에서 마주친 주민에게 물어보아도 모른다 고 했다. 장군이 뱃길로 창포만을 가로질러 동학농민군 훈련장이 있던 무안군 해제면 석용리 ‘민대들’ 등지로 오갔던 포구인 ‘창포 바우백이’도 마찬가지다. 간척 사업의 영향으로 지형이 바뀌어 포구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나마 집강소로 쓰였던 청전재에서 배상옥 장군과 동학농민군의 숨결을 희미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다. 앞서 ‘민대들에 삼의사(三義士) 비를 세운 까닭은’(광주일보 5월 3일자 참조)을 통해 무안 동학 지도자 ‘삼의사’(최장현·선현·기현)와 ‘김응문·효문·자문과 아들 김여정’ 그리고 무안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동학에 대해 다시 쓰게 된 까닭은 전남 지역의 동학농민혁명사와 지도자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는 자성 때문이다. 129년 전인 1894년으로 시계를 돌려 보자. 그해 봉기한 동학농민군은 2월 고부 민란→4월 무장 기포(起包: 농민군이 동학의 조직인 포(包)를 중심으로 하여 봉기한 것)→5월 황도현 전투, 황룡촌 전투를 거쳐 6월 11일(음력 5월 8일) 전주 화약을 맺는다. 무안 청전재에 집강소가 마련된 때도 이즈음이다. 그런데 동학군 진압을 핑계로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조선 땅에 상륙하며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는다. 일본군은 7월에 경복궁을 점령하고 친일 내각을 구성한 데 이어 청일전쟁을 일으킨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동학농민군은 10월 20일(음력 9월 18일) 전북 삼례에 집결한다.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이다. 배상옥 장군을 비롯

한 2000여명의 무안 농민군들이 참여했다. 한양으로 진격하던 농민군은 광주 우금치에서 경군과 일본군의 화력에 밀려 피눈물을 흘렸다. 바다쪽에서 들어오는 일본군의 배후 공격을 예상해 무안으로 다시 돌아왔던 배상옥 장군 병력 또한 12월 ‘고막포 전투’에서 크게 패했다. 그리고 해남으로 피신했던 장군은 주민 밀고로 붙잡혀 일본군에 의해 현장에서 총살됐다.

2차 기포 농민군 독립 유공자 예우를

“상육아 상육아 배상옥아/ 백만 군대 어디 두고/ 씩국대 밑에서 잡드노요.” 관군이 ‘호남 하도 거괴’(下道巨寇)라고 불렀던 배상옥 장군이 큰 뜻을 펴지 못하고 일본군에 의해 억울한 죽임을 당한 후 무안에서 불려진 노래라고 한다. 최근 2차 기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가보훈부는 1895년 10월 명성황후가 시해된 뒤 일어난 을미의 병부터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학연구자인 박맹수 전 원광대 총장은 이렇게 반박한다. “을미의병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20·30년 전 사료가 발견되기 전 낡은 이론이다. 전봉준 장군의 공초(供草)와 일본군 토벌 대장의 문서, 일본군 병사의 종군기 등 모든 자료들을 통해서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는 명백히 항일 봉기다. 이제는 의견을 수렴할 시점이 왔다.”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129주였다. 국가보훈부는 2차 기포한 동학농민군에 대한 예우를 격상해 명예 회복에 나서야 한다. 당시 동학농민군은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선 의병이기도 했다. 항일 투쟁과 독립 운동의 출발점이다. /song@kwangju.co.kr

노인과 어른 어떻게 다를까

“요즘은 어른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들 한다. 어른다운 어른,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란 무엇일까?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오래 사는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다. 그러나 나이 많은 사람이 아는 것이 많다는 것은 직접 경험에 의존했던 시대나 통할 이야기다. 더구나 각종 전문가 집단과 웹 검색 도구가 그 자리를 차지한 오늘, 어른이 지닌 경험과 지식은 급변하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마당에 어른이 꼭 필요하기는 한 것일까? 그런데도 어른다운 어른이 없다는 탄식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어른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개별적인 지식과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경로와 방법은 늘어났지만, 그것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어른은, 말이나 글이 아니라 자기 삶으로 그 길을 보여주는, 그래서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어른이다. 성리학의 대가 퇴계 선생의 생애를 일관하는 핵심 사상은 경(敬)이다. 경은 항상 자기 분수와 정도를 지켜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매사에 정성을 다하며, 잘됨이 없나 스스로 조심하고 살피는 자세다. 따라서 일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일에 겸허한 자세로 조심하고 자중자애(自重自愛)하는 생활의 지혜가 필요하다. 경거망동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자중자애하라고 말

한다.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사람들, 그리고 이치를 헤아리지 못해 잘못을 저지르는 이들과 이기심이 넘친 아전인수적인 사람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이 자중자애가 아닌가 한다. 노인만 있는 사회에서는 품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노인은 나이에 기대어 대접받으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이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믿기에 노인은 의뎍이가 되기 쉽다. 그렇지만 참다운 어른은 언행에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다. 연륜을 인정받아 한마디로 존경받는 사람이다. 어른이 많은 사회는 더 없이 강하다. 청년 고목이 나무 그늘을 만들고 그 아래 사람이 모여들어 고고한 인격의 향기가 풍기는 삶을 산다면 존경받는 어른이 아니겠는가. “가난한 집안 일지라도 마당을 깨끗이 쓸고, 여자가 머리를 곱게 빗으면 외관과 외모가 화려하지 않아도 품위가 우아해진다”고 했다. 우리는 가난해도 마음의 양식을 갖고 자기를 가꾸어야 한다.” 지혜의 고전인 ‘채근담’(茶根譚)에 나오는 말이다. 귀가 순해지고 생각하는 것이 원만해져 들으면 곧이 해가 되는 나이인 예순 살을 공자는 ‘이순’(耳順)이라고 불렀다. 모난 데가 없이 부드럽고 너그럽고 속이 깊은 때라는 뜻이다. 이해할 수 없던 것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없던 사람을 포용하며, 나눌 수 없던 것을 나누는 후덕이야말로 나이 들의 가장 큰 자산이다.

‘AI 도시’ 광주에 소부장·반도체 특화단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했다. ‘K-클라우드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진행되며, 1단계는 2025년까지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상용화 초기인 국산 AI 반도체 NPU(신경망처리장치)를 AI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고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에 제공해 그 효과를 시험 검증한다. 이를 위해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반도체의 시험 및 검증 환경을 조성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광주 첨단 3지구에 있는 AI 집적단지의 핵심 시설인 AI 데이터센터에 ‘AI 반도체 시험 검증 환경’을 조성한다. 이 사업은 전국 자치단체 중 광주시가 유일하게 2023~2024년 2년간 ‘AI 반도체 시험 검증 환경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 200억을 확보함에 따라 진행된다. AI 데이터센터에는 20페타플롭스(PF) 연산량 규모의 NPU 패키 구축된다. 1PF는 1초당 1000조 번의 연산을 할 수 있는 단위로, 엄청난 규모다. NPU는 미국의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GPU(그래픽처리장치) 방식의 대규모 전력 소모 단점을 개선한 AI 반도체다. 특히 국산 AI반도체를 광주시 폐쇄회로TV(CCTV) 통합관제센터에 실증함으로써, 전국의 CCTV 통합관제센터 등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AI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서비스 적용 실적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산 AI 반도체의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데이터센터와 서비스에 적용되고 검증된 레퍼런스(사례)를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국산 AI 반도체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고 서비스까지 실증함으로써 AI 반도체 기업들이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조기에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국산 AI 반도체의 경쟁력을 키우는데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광주가 AI와 미래차 산업을 앞 단계로 미래전략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AI 반도체 시험 검증 환경이 조성되면 AI 데이터센터와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광주는 민선 8기 들어 빛그린국가산단 인근에 100만 평 규모의 미래차 국가 산단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으며,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과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도 신청한 상태다. 미래차는 소부장과 AI 반도체가 중요하다. 따라서 미래차 국가 산단을 유치한 광주에서, 소부장과 AI 반도체 사업도 반드시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다. 이미 AI 데이터센터가 구축된 광주에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가 유치되면, 미래차 국가 산단에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배터리 등 미래차 산업을 집적화해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광주 AI 특화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나아가 광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크게 높여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社說

‘공급 과잉’ 광주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국토교통부가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광주에 1만 3000세대 규모의 공공 주택 지구를 조성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가 수차례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지구 지정을 강행하면서 중앙·지방 정부 간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광주시 광산구 산정·장수동 일대 168만 3000㎡에 대한 공공주택 지구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주변 지역 연계 개발 관련한 광주시와 지속적 협의, 국토부와 광주시 간 갈등 관리 방안 강구, 지구 계획 승인 전 보고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LH는 이달 내 지구 지정을 고시하고, 2025년까지 지구 계획 승인과 보상을 마무리 한 뒤 2026년 착공할 예정이다. 산정 공공 주택 지구 사업은 2021년 2월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 안정 대책 중 하나로, 2030년까지 공공 임대 5000세대 등 총 1만 3000세대의 공공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당시 광주시는 부족한 공공 임대 주택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

현행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민선 8기 들어 광주시는 인구 감소와 전국 최고 수준의 주택 공급 과잉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이 불필요하다며 계획 철회를 요청했다. 실제 광주의 주택 보급률은 2021년 기준 104.5%로 전국 평균보다 2.5%가 높다. 더욱이 향후 10년간 민간공원 특례 사업 등으로 10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 신축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차 심의에서 유보 결정이 내려진 것이나 광주 경실련이 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토부의 구상은 도심 외곽 개발을 억제하고 구도심을 중심으로 도시 재생을 유도하는 광주시의 도시 기본 계획과도 어긋난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과잉 상대인 광주의 실정을 감안해 지구 지정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공공 임대 주택 확대를 위해서라면 광주 도심 내 다른 부지로 사업 장소를 변경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훈선 빛는 5·18 보상 신청, 기준 마련 서둘러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이 8년 만에 재개됐다. 광주시는 그제부터 신청 민원소통실에 ‘5·18 제8차 보상 서류 접수’ 창구를 열고,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신청은 지난해 12월 5·18 보상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5·18 관련 사망·행불자, 상이자, 수배·연행자 등만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5·18 해직자와 학사 징계자, 성폭력 피해자 등으로 확대됐다. 또한 상이자(기타 1급·2급) 중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를 해 재판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접수 첫날부터 광주시 신청 창구는 훈선을 빗었다. 시행령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8차 신청에 대한 홍보·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광주 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는 안내문조차 찾을 수 없었고, 광주시 홈페이지에만 배너 광고가 게재됐다. 더욱이 구체적인 신청 대상과 보상 기

준, 제출해야 되는 입증 자료 등이 정해지지 않은 채 ‘일단 접수해 보라’는 식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신규 신청자가 광주시청을 찾아 현장 접수를 해야 하는 점도 불만을 사고 있다. 수천 명으로 추정되는 추가 신청 대상자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상 신청 기준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접수부터 받으면서 행정 편의주의적,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연말로 잡고 있는 5·18 보상 지급액 기준 설정 등을 앞당겨야 한다. 광주시 또한 확정된 심사 기준에 따라 대상자와 보상 지급 가능 여부 등을 꼼꼼하게 판단해야 한다. 43년 전 선군부에 의해 강제 해직을 당한 언론인 등 많은 대상자들이 과거의 피해 사례에 대해 충실하게 입증 자료를 챙겨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No Equal Drum) - 유령 영아 사건 193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이미 사망이 확인된 영아만 1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행방이 불분명한 영아가 170명이 넘는 만큼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안타깝다. 출생 통보제는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되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있다. 출생 기록이 남는 것을 원치 않는 산모들의 ‘병원 밖 출산’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신고 외국인 영유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 에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한 보호 출산제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수원 영아 냉동고 유기 사건’ 등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하거나 방치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뒤늦게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탔다. 조금 더 일찍 법안이 통과됐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영유아 가운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는 총 2236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전수 조사와 수사 의뢰가 이어지고 있고,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에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